

포천출신 동농 이해조선생 작품 연구

이해조문학제 독후감 시상식 및 기념세미나



이해조문학제는 12월20일 대전대학교 대학원 209호에서 황영철 포천시장관한대행, 최길용 경기도 포천교육장,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원, 이규상 면임최익현선생숭모사업회장 등 내빈과 회원 및 시민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조문학제 독후감 시상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해조문학제(회장 김성렬)는 12월20일 대전대학교 대학원 209호에서 황영철 포천시장관한대행,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장,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원, 이규상 면임최익현선생숭모사업회장 등 내빈과 회원 및 시민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조문학제 독후감 시상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안익수 이해조문학제 사무국장의 사회로 제1부 시상식, 이은영 이해조문학제 회원의 사회로 제2부 독후감 대상작품 낭독 및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 김성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농 이해조 선생은 포천이 낳은 뛰어난 문인이자, 계몽운동가, 언론인, 교육자 등을 겸하

신 선각자였다"며 "오늘 그분을 기념하여 독후감 시상식을 하고 관련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영철 포천시장관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인 것"이라며 "포천이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 이해조선생님의 작품을 읽고 조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우리 선현들의 훌륭한 점을 받아들여 포천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장은 격려사를 통해 "작년에 케냐를 방문해 1시간동안 강의후 질문을 받았는데 월드컵, 태권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며 "오늘 행사가 동농 이해조 선생과 작품을 포천의 자랑거리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만규 포천문화원장은 "강원도 봉평의 메밀꽃축제와 처음에는 마을단야 행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국적인 행사로 수습만행이 다녀가는 축제로 자리잡았듯이 오늘 시작하는 이해조문학제가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87

의병장 김천일(金千鎰) 과 논개(論介) (5)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해는 바뀌어 계사년(癸巳年), 왜군은 본국의 도요포미 히데오시의 명에 의하여 전년의 진주성 싸움에서의 수치를 씻으려고 하였다. 이 때 명나라는 화(和)로서 왜적을 물러가게 하려는 계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명장으로 적군을 뒤엎아 남하한 자는 대개가 안병부전(安兵不戰 : 군사를 한 자리에 멈추고 싸우지 않음)의 태도를 취하였다. 그 때 우리편 군사들은 조정의 명에 의하여 도원수 김명원(金命元), 순찰사 권을 이하 관병과 의병이 모두 의령에 모여 있었으나, 감히 먼저 치지 못하였다. 권을이 제장을 꾸짖어 강을 건너 함안에 이르렀으나, 내습하는 적군의 기세가 너무 어마어마함을 보고 모두 흩어져 달아났고, 권을과 김명원 등은 먼저 호남으로 피해 들어갔다. 오직 장사 김천일만이 분발하여, 제장에게 이르기를, "진주는 호남과 순지(壽巖)의 평야다. 진주가 없이 호남이 있을 수 없다. 성을 버리고 적을 피하여 적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비계(非計)이다. 힘을 다하여 적군을 막는 이만 못하다."라고 역설하였다. 제장은 응치 않고 흩어져 가는 사람이 많았다. 김천일은 이에 경사 우병사 최경회(崔慶會), 충청 병사 황진(黃進), 의병장 고종후(高從厚), 사천 현감 장운(張潤)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진주성으로 들어가니 이 때 김해 부사 이종인(李宗仁)은 먼저 입성해 있었다. 성내의 군사는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하였으나 남은 백성들은 무로 6, 7만에 달하였다. 그리고 먼저 이방장, 강희열(姜熙烈), 이갑(李翬) 등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 때의 목사 서예원(徐禮元)은 본래 겁이 많고 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모든 방수(防守)의 계획이 김천일에게서 나오니, 주객이 서로 맞지 않았다. 게다가 주변의 군병과 우리편의 군사들은 다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 진주성은 저절로 고립 상태에 빠졌다.

못하였다. 이 때 황진이 성에 올라가 진지를 시찰하다가 흩어진 적의 총탄에 왼쪽 이마를 맞아 비장한 죽음을 당하자, 즉시 장운으로 그를 대신케 하였으나, 그 또한 전사하였다. 동문의 성이 비로 인하여 무너져자 적병들이 개미떼같이 달라붙어 올라오니, 이종인이 고전분투하여 간신히 물러났다. 미구에 적군의 정예가 북문에서 칼을 휘두르며 사다리를 타고 넘어 들어오자, 목사 서예원이 먼저 달아나고 지킨단 군사들이 흩어져 도망쳤다. 이종인, 이갑, 강희열 등 10여인은 칼을 휘두르며 적병을 맞아 싸우다가 힘이 다하여 죽었다. 종인은 죽을 때 적병 한 놈씩을 좌우편 허벅지에 끼고 칼로 찌어으며 크게 소리치기를, "김해부사 이종인이 여기서 죽노라." 하였다. 김천일 등은 그 아들 상건과 고종후(高從厚) 부자와 최경회(崔慶會) 등 수십 인과 더불어 북향재배한 뒤, 남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절전 팔구일 재인 6월 29일, 성이 함락되자 군·관·민(軍官民)이 모두 도륙 당하고, 소·말·닭·개까지도 남아나지 않았다고 한다. 싸움이 끝나자 왜군의 장졸들은 축적루에 올라 승전의 축하를 들었다. 그 때에 진주 기생 논개를 거짓 야양을 떨며 적장 하나를 유인해 내어 남강 가의 바위 위에서 그 적장을 껴안고 칼로 찌어 죽였다.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원수 한 놈을 죽게 한 것이다. 지금도 축적루 옆에 논개 봉사하는 의기사(義妓祠)란 사당이 있다. 이상의 사실은 적병에게 붙들려다 도망쳐 나온 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다. 이 진주성의 활전이야말로 조선의 훈을 유감없이 발휘한 역사상 일대 금자탑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1940년대 뮤지컬 개요

할리우드(Hollywood) 뮤지컬의 황금기 I

연극이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연극과 정치는 어느 시대나 대부분 대립 관계에 있었던 것 같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는 연극이 소의계층을 대변하면서 오히려 정치문제나 사회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파헤치는 작품들이 흥행에 성공했고 인기를 얻었다. 반면에 불안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는 공연예술계가 위축되기 도 했지만 암울한 환경을 정면 돌파하려는 문제의식의 발로로 다양한 형식과 실험을 통한 슬한 명작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면에서 2차 세계대전으로 암울했던 1940년대의 할리우드는 20세기를 통틀어 벨 에포크 즉, 할리우드 뮤지컬의 '골든 에이지(Golden Age)'로 평가된다. 유신정권하의 한국 공연예술계는 표면상으로는 매우 위축된 시대였다.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본검열 과정을 거쳐야 했고 빨간색의 씨인펜으로 그려진 문장이나 단어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 공연할 수 있었다. 심지어 제5공화국이었던 80년대 중반까지도 검열의 칼날은 매서웠다. 일례로 1983년에 초연하여 배우 윤석화를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신의 아그네스》와 이문열 원작의 《사 랩의 아들》의 경우 검열과정에서 '피'라는 단어가 빨간 줄이 그려져 검열위원회에 진정하고 재심의 요청한 기억이 난다. 당시 연출부였던 필자와 기획자가 검열위원들을 만나 '피'라는 단어가 현 정권의 정치적인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 시킨 뒤에야 공연에 막이 오를 수 있었다. 《신의 아그네스》와 《사 랩의 아들》에서 '피'라는 단어는 작품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상징성이 풍부한 단어인데 삭제하라는 것은 곧 공연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당시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오히려 혼란일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공연을 준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는 정치사회적으로 는 경직되어 있었으나 연극계는 지금보다도 훨씬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작품이 실험되었으며 연극인들의 마인드도 훨씬 순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1940년대 유럽의 경우는 나치의 감시하에 공연예술이 위축된 시대였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상황이 차질하면 차질할수록 문화와 연극의 값이는 더해만 갔다. 까뮈와 사르트르의 참여문학 논쟁에서부터 자국의 민족주의를 일깨우는 작품들이 나치의 삼엄한 검열을 교묘히 피하면서 유럽 곳곳에서 공연되어졌다. 유럽과 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미국의 공연예술 시장도 그 어느 때보다도 흥행을 누렸다. 브로드웨이에서는 어빙 벌린(Irving Berlin, 1888~1989), 콜 포터(Cole Porter, 1891~1964), 쿠르트 바일(Kurt Weill, 1900~1950) 등 1930 년대에 활동했던 작곡가들이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고 세기의 파 트너였던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2

세(Oscar Hammerstein II)도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특히 할리우드는 뮤지컬의 황금기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뮤지컬 영화들이 제작 되었으며 할리우드 뮤지컬 역사상 최고의 명작들이 탄생했다. 그 중심에는 물론 제작자 아서 프리드(Arthur Freed, 1894~1973)가 있었다. 흥행의 마술사로 일컬어지는 아서 프리드(Arthur Freed)의 등장과 함께 할리우드 뮤지컬은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 1939년에 영화 크레딧에 제작자로 이름이 오른 이래 1950년대 까지 할리우드의 뮤지컬 역사를 새롭게 썼다. 물론 그는 MGM 영화사 소속이었는 데 그의 출현과 함께 MGM 뮤지컬은 곧 할리우드 뮤지컬의 고유명사로 통하게 되었다. 그의 지휘 하에 수많은 명작들과 명배우들이 탄생했고 능력 있는 작곡가 작사가들이 줄을 이었는데 주디 갈랜드(Judy Garland), 미키 루니(Mickey Rooney),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 빙 크로스비(Bing Crosby), 리타 헤이워드(Rita Hayworth), 진 켈리(Gene Kelly), 등 세계적인 명배우들이 포진했고 빈센트 미넬리(Vincente Minnelli), 버스비 버클리(Busy Berkeley) 등도 감독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당시 브로드웨이를 지키던 많은 작곡가와 작사가들도 합류했는데, 특히 어빙 벌린(Irving Berlin)과 콜 포터(Cole

Porter)는 브로드웨이에서 작업할 때보다도 더 재미있고 기억할 만 한 음악들을 만들어냈다. MGM 뮤지컬의 성공으로 다른 메이저 영화사들도 뮤지컬 제작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유성 영화이며 뮤지컬 영화인 《재즈싱어》(Arthur Freed, 1894~1973)가 있었다. 20세기 폭스 영화사들이 뮤지컬 제작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것은 이 때가 바로 1940년대였다. 비록 2차 세계대전으로 암울한 시기였지만 할리우드는 유머와 애국심을 강조하는 뮤지컬 영화들이 대세를 이루었다. 음악적인 면에서는 재즈와 클래식 결합했으며 아메리칸 포크 오페라 스타일의 뮤지컬이 시도되었다. 많은 대사와 탄탄한 스토리에 아름다운 음악이 결합한 뮤지컬 플레이의 전성기가 최근 흑인음악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리듬 앤 블루스 즉, R&B의 시초인 일렉트릭 블루스가 탄생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고출력 앰프를 동반한 일렉트릭 기타의 사용은 독특한 주법들을 만들어냈고 모던 블루스의 시대를 알렸으며 뮤지컬 음악에도 상당한 영향을 불러 일으켰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특색 있는 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포천문화원 2007 문화인의 밤 행사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규)은 12월 21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고조홍 국회의원회장이장 김희열(金熙烈)의 의뢰를 비롯한 각급기관 단체장과 문화가족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문화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의 시점에서 각 분야에서 지역 문화 발전에 헌신해 온 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2007년 문화원 1년을 총 결산하는 동영상을 시작으로 지부위원 세분제에 대한 추대배 증정 및 문화학교 수료생들의 공연, 작품 전시회, 만찬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만규 문화원장은 특사로 책사업으로 추진한 좋은 책 읽기 운동 독후감 입상자, 문화유적답사 소감문 입상자, 문화학교 2007년도 문화 발전에 헌신해 온 문화가족이

개 과정 봉사상 시상식을 했으며,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수고하신 문화가족 및 관계자들의 노고와 협찬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특색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정체성 확립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가진 문화행사는 축시낭송을 비롯 지난 1년간 포천문화학교에서 배운 고전강독, 사물놀이, 기타공연, 우리 춤 체조, 대금, 가야금합창, 가야금병창, 경기민요, 찬조공연인 섹스폰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만찬을 가짐으로써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는 21일부터 25일까지 문화학교에서 연마한 꽃꽂이, 시문, 한국화, 전통 및 현대사각, 교실한자공예, 소묘 수채화, 규방공예, 서예, 전각 등 그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 자랑 전시회를 개최하여 관심을 끌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22)

용연서원(龍淵書院)과 배향인물(配享人物)

우리 고향 포천 최고의 선비정신의 본향(人之本鄉)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의(觀光巡禮地)제1호인 곳이 바로 '용연서원'이다. 「용연(龍淵)」이란 서원 곁에 「용연」이란 연못이 있었던 연고라고 하지만 우리 고장 최고의 인물 「조경(趙綱)」선생이 아끼시던 연못이 있던 곳이어서 「용연서원」이란 사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옳은 대답일 것이다. 양사언 선생께서 한국 문학사(韓國文學史)의 최고의 명문장가로 수많은 시문(詩文)을 남겼는데 「조경」선생께서는 「포천(抱川)」 읍지(邑誌) 견성지(堅城誌)를 최초로 만든 분이여 포천을 누구 보다는

사랑한 분이 셧음이 왕조실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임진왜란 당시, 국란극복의 최고의 명신이자 외교관이며 명문장가였던 「한을 이덕형」선생도 용연서원에 함께 배향되고 있다. 고종5년(1868년) 대원군 집권 당시 전국적 서원이 해체의 위기를 맞았어도 용연서원만은 건재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원군 자신이 존경하는 「한을」 「용주」선생이 모셔진 「용연서원」을 감히 해체 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 정설(正說)이다. 숙종 17년(1691년) 「이사상(李師相)」등의 남인의 유성들이 중심이 되어 건립되었다. 「한을」에 대하여는 잡설이 필요 없었으나 「포옹산인(抱翁散人)」이란 호

(號)가 포천인으로서 매역을 논한다. 「한을 이덕형」은 또, 「백사(白沙)」 「봉래」와도 절친한 사 이였으며 영의정「이산해」가 사위 을 삼을만치 인물됨이 뛰어나다. 선조13년(1580년) 별시문과 급제 후 승문원의 관원이 되었으며 선조임금으로부터 서적을 하사 받음 만치 총애를 받았는가 하면 중국(明) 초사 왕경민(王敬民)과 의 사사로운 면대를 거절할만치 공사(公私)가 분명한 공인(公人) 이었다. 임진·정유왜란 당시 대명 대 일 외교관으로 맹활약한 명재상 이며 1608년 영의정이 되었다. 조 경(趙綱)선생은 호가 「용주(龍洲)」 「주봉(株峯)」이다. 1586년

조경선생은 한음과 같이 임진·병자란시 척화론(斥和論)을 주장했으며 외교관으로 맹활약을 한 인물이다. 1661년 관중추부사로 윤선도의 상소를 변호하다가 대간의 파지 상소로 논박을 당했다. 조경선생은 포천의 유유부사 당인 총독단이 성스럽고 바르게 모셔지지 않음을(바로 잡기를) 상소한 충신이었으며 1658년에는 「행부호군(尙仁君)」에 임명 「기 로소(耆老所)」들어 가는 영광을 누렸다. 조경선생과 한음은 용연서원에 모셔진 명현(名賢)이란 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행적을 연구하고 되새겨 빛내는 교육 체험, 저서번역도 우리의 몫이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祝李明博候補大統領當選(축이명박후보대통령당선)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新韓政府誕吾東(신한정부탄오동) 喜悅蒼生處處同(희悅蒼生處處同) 신한정부가 우리나라에 탄생하게되니 창생이 곳곳에서 희열하고 있도다. 去十年間除舊惡(거십년간제구악) 三千里內起和風(삼천리내기화풍) 지난십년간의 구악을 제거하고 삼천리 강산에는 화풍이 불고 있네 優邦大志宜揚際(우방대지선양계) 愛族衷心發耀中(애족충심발요중) 나라를 걱정하는 큰 뜻을 선언하고 애족충심을 발양하네 經濟成長民樂業(경제성장민중락) 然而福祿永無窮(연이복조영무궁) 경제가 선진된다 하니 민중이 즐거워하네 그러나 나라의 행운이 무궁하리라.